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기사를 싣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노년시대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실버NEWS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뒤늦게 배운 서예 시간가는 줄 몰라"

송명섭씨(73세), 제26회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 서예한문부문 입선 … 2000년 자녀 만나러 왔다가 정착

국제미술작가협회가 주최한 제26회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에서 서예한문부문에 입선한 송명섭씨(73세)는 오늘도 고성노인복지회관 2층 서예실에서 붓에 열정을 담아 서예연습에 한창이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처음에는 취미로 해 볼 생각이었으나, 열심히 배우다보니 인정을 받고 주위의 권유로 출품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송씨는 1살 때 중국에서 일본회사에 근무한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7살 때까지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전북 군산, 지금의 새만금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해 그곳에서 학업을 마쳤다.

졸업후 건축업으로 시작된 직장생활을 하게 된 송씨는 건축사업을 통해 자수성가한 케이스다.

32살 때 결혼을 한 그는 건축사업이 하강세를 보일 때쯤 운동에도 일가견이 있어 취미삼아 당수를 배우기도 했다.

또 모든 운동에 관심을 보인 송씨는 헬스를 배워 건축업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헬스 사업을 경영하기도 했다.

송씨는 2000년 7월 고성에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러왔다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 생각돼 부인과 함께 고성으로 이주했다. 부인은 현재 간성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은 공기도 좋고 바다도 가까워 천혜의 자연이 둘러쌓여 너무 좋은 곳이라 생각해 자리를 잡았지요."

송씨는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이 다양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주위에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도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죠. 지역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박승근 기자

어르신 100명 '행복한 동행'

고성군노인복지회관 가족운동회 개최

지난 20일 열린 '행복한 동행' 가족운동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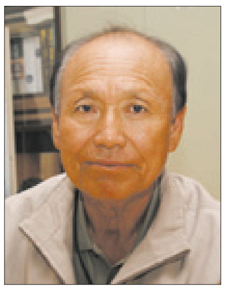
고성군노인복지회관(관장 최충협)은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가족의 여가 프로그램에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가정과 노인결연가정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체사진촬영을 시작으로 행복한 추억만들기 포토에세이, 페이스페인팅 및 사랑찾아 물고오기, 탁구 공나르기 릴레이, 음악에 맞추어 신나는 디스크를 비롯해 얼굴 만져 느낌으로 내부모 찾고 엄마 사랑해요 외치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우리마을 경로당 / 죽왕면 오봉1리

전통 한옥 지키는 협동심 강한 마을



최무성 회장

죽왕면 오봉1리 경로당 전경.

48가구 1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죽왕면 오봉1리는 문화재청이 보호하고 있는 전통한옥 마을인 왕곡마을이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자 옛 가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오봉1리 경로당 회원은 30여명이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아름다운 한옥이 마을 어른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최무성 노인회장(72세)은 왕곡마을을 출신으로 이곳의 산 증인이다. 최 회장은 "6.25사변 전에는 1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전쟁통에 다 불타고 소실이 됐다"고 했다.

오봉1리는 젊은층이 대부분 마을을 떠나 현재 65세이상 노인층이 90%라고 한다.

최 회장은 젊은이들은 떠나고 없지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고 자라다보니 다 가족같아 협동심이 강하고 단합과 화합이 잘 되는 마을이라고 자랑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짚을 엮어 지붕수리를 직접하고, 대나무를 잘라 한옥 수리도 직접한다.

또 한옥마을 축제 때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내 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기도 한다. 박승근 기자